# <산업자원부> 신기술 · 신물질 표준화 기술개발 수요조사

신기술 또는 신물질의 성능이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술이나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한다.
또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신뢰성 · 재현성 등을 모두가 인정하는 방법(Consensus)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되는 고순도 신뢰물질(표준물질)도 표준화한다.
신물질 · 신기술 개발시 국제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성능이나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분해성 고분자 플래스틱 물질을 개발해 국제시장에 내놓았을 때 분해조건(땅속 조건), 분해결과 평가방법(부스러지는 정도) 등이 표준화되어야만 플래스틱의 섞는 정도를 비교해 평가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표준화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해 시험 · 분석 · 평가와 같은 표준화 연구개발, 산업현장의 검증 등 표준화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업종별 단체 및 관련기업 등 192개이며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표준화 기술개발 수요조사는 ▲측정기술 ▲시험평가방법 ▲표준물질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기술분야의 표준화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산자부는 표준화 기술개발 수요조사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2001년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표준화기술개발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화 대상기술 및 조사분야**

| 분 야 | 내 용 |
|---|---|
| 측정기술 | 길이, 부피, 무게등에대한측정기술및측정응용기술로서산업체의응용이가능한것 |
| 시험평가방법 | 시험평가에적용되는기준및방법기술 |
| 표준물질 | 교정용또는산업체의생산공정에적용하기위해필요한표준물질 |
| 표준연구개발 |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화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표준이나국제표준이확립되어있지않은표준 |

산자부는 신기술 · 신물질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이 체계적인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 표준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표준전쟁시대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을 만들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표준화 기술개발사업이란 신기술 또는 신물질의 성능, 신뢰성, 재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술 또는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하거나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의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간의 콘센서스에 의해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화학저널 2000/11/27>